놀부… 지주로 민란에 죽은 '박첨지'
흥부… 형에 쫓겨 유랑한 '춘보'

고소설 '흥부전'발상지에 대한 고증조사〈2〉

3. 아영면(阿英面) 성리(城里)의 고증

(1)임세강 비문:1991년 12월에 남원군 아영면 성리 뒷산에서 임세강의 비석이 발견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비문의 내용이 '흥부전'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조사단이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임세강의 비석은 '흥부전'의 내용과는 전연 무관함이 판명되었다.

(2)북덕촌:문헌조사에서 '북덕촌'의 위치를 추론한 결과 그 제1차 후보지는 남원군 아영면이었다. 그런데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마을과 접하고 있는 장수군 반암면 '북성리(福星里)'가 '북덕촌(福德村)'임이 밝혀졌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북성'은 덕성의 다른 이름으로 '북덕성'의 준말이다. 그러므로 현재 '북성리'인 '북성촌'의 원 이름은 '북덕성촌'이다. 이 '북덕성촌'을 부르기 쉽게 '성(星)'자만 빼면 곧 '북덕촌'이 된다. 한편, 지금의 이름인 '북성리'는 '북덕성'의 준말인 '북성'에 '리(里)'를 붙인 것이다.

그런데 흥보가 처음 찾아든 곳은 장수군에 있는 북성리인데, 남원군의 성리가 '흥보마을'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두 마을은 동일 생활권으로 사람들이 쉽게 오가는 곳이다. 둘째는 성리에서 흥보의 원형적 인물로 추정되는 '춘보'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를 기리는 '춘보제'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셋째는 흥보는 처음에는 북덕촌에 정착하지만 뒤에 도승이 새 집터를 잡아 줌으로써 그리로 이사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성리에 있는 '고둔터'라고 성리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춘보를 흥보의 원형적 인물로 본다면 흥보가 북덕촌에서 살다가 이 성리마을로 이사왔으리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3) '춘보'와(흥보전)과의 관계:아영면 성리에서는 '춘보'라는 분의 이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 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 '춘보'를 흥보의 원형적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마을제사로 '춘보제(春甫祭)' 또는 '춘보망제(春甫望祭)'를 옛날부터 지내 내려 왔다고 한다. 이 제사는 1940년무렵 중단하였다가 한 반세기만인 1992년부터 부활하여 올해 1993년에도 지냈다.

춘보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춘보는 처음에는 가난했으나 뒤에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집안에서 효도·우애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의 애경사에 후히 온덕을 베풀었고 사람들에게 인후하고 관대하게 대했다. 한 마디로 춘보라는 인물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선덕가였고 존경받는 장자였음을 알수 있다. 한편으로, 이 마을에서는 이 분과 관련하여 '허기재'와 '흰죽배미'같은 지명도 생겨났다.

이와같이 볼 때 이 마을의 춘보는 (흥보전)의 흥보의 모델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흥보는 북덕촌에 살았다. 춘보도 북덕촌에 살았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조건이 더 부합된다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될 수 있다.

둘째, 흥보는 가난 끝에 발복해 부자가 된 인생을 살았고, 춘보도 가난 끝에 부자가 된 인생을 살았다. 두 사람의 인생 양상이 똑 같다.

셋째, 흥보는 효도·우애했고, 춘보도 효도·우애했다. 또, 흥보는 인후관대한 전형적인 선덕가이며, 춘보도 인후관대한 전형적인 선덕가이다. 이와같이 두 사람의 인품도 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똑같다.

넷째, '흥보'라는 이름과 '춘보'라는 이름은 그 형태나 소리에서 매우 흡사하다. 그러므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관계에 있다. 그 소리를 보면, 우선 두 자중 윗 글자인 '보'자 한 자는 완전히 똑같다.그리고 첫자도 유사하다. '춘'자의 'ㅊ'나 '흥'자의 'ㅎ'자는 양쪽다 'ㅎ'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가깝다. 다음으로 '춘'자의 '우'자와 '흥'자의 '으'자는 둘다 상설모음(上舌母音) 즉, 폐모음으로 같은 계통이다. 끝으로 '춘'자의 'ㄴ'자와 '흥'자의 'ㅇ'자는 둘 다 유성음 즉 '울림소리'로 같은 계통이다. 이와 같이 '춘보'와 '흥보'는 음성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이름이다. '春甫(춘보)'라는 이름은 문학가)의 '흥보'는 '춘보'를 모델로 하여 약간 바꿔서 만들어낸 이름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이 지역에서 살았던 옛날 분들이 '춘보'가 '흥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무근거 없이는 내려 오지는 않을 것이다. 녀군다나 이 지역에는 위의 네 가지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이 증언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이(흥보전)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을 볼 때 비록 추보같은 확정적인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으나, '춘보'는 (흥보전)의 주인공인 '흥보'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으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한 결과, (흥보전)의 발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흥보전)은 단순한 공상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전라북도 운봉(지금의 남원)쪽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모델로 하여 만든 작품이다.

둘째 동면 성산리에 살았다는 박첨지는 전라·경상 양도 어름에 많은 땅을 가진 지주로서 민란에 의해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놀부의 모델로 추정된다.

셋째, 현재 아영면 성리와 접경하고 있는 장수군 반암면, '북성리'는 신재효본에서 흥보가 유랑 끝에 정착했다는 '북덕촌'과 같은 마을임이 밝혀졌다.

넷째, 아영면 성리에서 살았다는 '춘보'는 그 성품이나 인생 역정 그리고 이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흥보'의 모델로 추정된다.

다섯째, '춘보'의 성도 박씨이고 동면 성산리의 '박첨지'의 뒤 성리 일대의 주민들에게 선덕을 많이 베푸었다. 그래서 그가 죽거나 또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로 떠난 뒤에도 성리 마을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춘보망제'를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여덟째, 이상의 대조적인 형제의 이야기를 권상득이 남원군 주천면에 와서 소리공부 할 때 듣고서 그것을 소재로 판소리(흥보가)를 만들어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뒤에 신재효는 그 사실을 들었거나 또는 조사하여 '박타령'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김창환 명창도 선대로부터 전해들은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비노정기'를 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증은 문헌적 연구와 현지조사의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종합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흥부전)의 연구를 한 차원 높였다고 감히 자부한다. 다만, 이 연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남는다. 그것은 '춘보'에 대해서 더 이상 접근을 해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흘렀으므로 이는 아마도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일는지도 모른다.

※'흥보'와 '흥보전'이 원칙적으로는 옳으나, 관습에 따라 이 글에서는 '흥부·놀부', '흥부전'으로 쓴 것임. 〈끝〉

김 창 진

〈본교강사·국문학〉

春甫제' '춘보망제' 옛부터 지내
'춘보'에 대한 더이상의 접근 어려워

時鐘

무엇을! 누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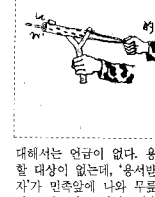
지난 13일 김영삼대통령은 광주문제해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5·6공정부가 광주대학살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였기에 광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리라곤 그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순수한 '문민대통령' 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가냐긴 시간동안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는 점에서 그가 이제는 광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담화문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우리 다같이 잊지는 말고 과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

'잊지는 말되?' 무엇을 잊지말자는 것인가. 광주의 시민을 학살하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그 명령을 충실히 행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 누구인지 아직까지 우린 알지도 못하는데, 잊지않기위해서는 잊지말아야할 것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도 김대통령은 그 내용에 대해선 역사 저 뒤편으로 묻어버리자고 한다. 그러나, 우린 그날을 잊을 수 있는가? 광주학살의 주범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지금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김대통령은 '과감히 용서하자' 고 한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용서할 대상이 없는데, '용서받을 자'가 민족앞에 나와 무릎꿇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과감히'용서하자고 한다.

그는 결국 주어도 없는 술어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을 잊지 말자는 것이지, '누구'를 용서하자는 것인지 그 구체적 대상에 대해선 언급도 없이 오직 '잊지말자' '용서하자'는 말만 강연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민정부가 출범이후 연이어 만들어내고 있는 '말'들은 그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지도 않은 채 끝입없이 미끄러지고만 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데테의 강'을 건너는 것은 아니라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역사는 현재를 숨기기위한 여행용 가방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는 광주문제를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이말은 훗날 김영삼정부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근거중의 하나로 거론될 것이다.

모든 역사는 현재에 맞닿아있다. 빛고을의 수많은 영혼이 우리들을 굽어보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제 뚜렷한 역사의식과 올바른 근거들로 광주학살자들을 법앞에 세워 본질을 폭로하고, 당당하게 '광주항쟁'을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조기홈 취재부장〉

도서관 전산화 … 문헌정보 공유부터

중앙도서관 현황과 전망(下)

2001년이 되면 대형 범용 컴퓨터는 한정된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CMOS(상보성 금속산화막 반도체)기술로 단일 집화한 프로세서를 병렬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렇다면, 범용컴퓨터라야 뭔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분산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전산화를 경제화할 때라고 본다.

앞으로 다운싸이징함에 있어서, PC, WORKSTATION. 중형 그리고 메인프레임의 어떤 조합으로 CLIENT/SERVER를 구성할 것인가는 여건의 변수에 달려 있겠지만 미니급이상의 SERVER는 비경제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도화한 컴퓨터 환경 에서 는 CLIENT와 SERVER가 역할에 따라 상대적인 이름일 뿐 모두 대용량 다기능어 PC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 외부데이타의 활용

정보망이 고도로 발달해 감으로써 국외정보이용에 관한 도서관의 역할을 옛날 보다 다소 축소시켜 뭔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내외 학술정보를 공중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학내외에서 자기의 컴퓨터로 직접 검색하고 원문도 입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료정보에 대한 중계 업무는 도서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료부과와 요금징수를 자동화해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온라인정보의 대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CD NETWORK을 구축하여 학내 랜(LAN)상에서 검색이 가능토록 구상중에 있다. CD로 된 외국자료는 많은 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나, 도서관에서는 우선 색인 및 초록지 3종을 CD로 대치구독 하였던바, 아직은 이용이 저조하여 정간물 구입비 및 공간절약에만 기여하고 있을 따름이다.

각종 네트워크에서 자료조사가 가능하다 한들 외국에 있는 자료일 경우라면 원문의 입수가 쉽지 않으므로, 적어도 국내 어딘가에 문헌 실물이 있어야 원문의 열람, 복사내지는 입수가 수월해지고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해 질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지의 중복 구입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종류의 자료를 국내에 입수하기 위해 도서관들이 분담구입제를 자주 거론하고 있지만, 단절과 결단이 선행 되어야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

라. 학이논문 전산

중앙도서관은 학위논문 10여만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위논문실을 지난 5월3일에 개장하였다. 본교 논문 전체와 그간 입수된 7만여종의 타교 논문을 비치, 후 미입수논문에 대하여는 전국의 학위논문서지가 입력된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타를 활용키 위해 교섭중에 있다.

문헌정보의 공유를 전제하지 않은 도서관전산화란 무의미하며 자관의 자료입력, 대출 열람만을 위한 전산화란 사무자동화에 불과하다. 공유할 수 있는 데이타는 호환성이 필요하고 호환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또는 국내 통일 marc를 사용해야 한다.

서지데이타의 특성은 레코드의 길이가 길고, 가변장 가변필드로 입력해야 메모리를 절약하 수 있고, 종류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인덱스를 적어도 얼개이상 만들어야 이용자의 다양한 검색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재고관리와 같은 부류의 프로그램으로서는 다룰 수가 없다.

또 한자를 비롯한 동양권 문자는 물론, 불어, 독어, 러시아어등의 문자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고로, 국내도서관에서는 자체개발이건, 유수한 외국프로그램의 수정이식이건간에 대형범용기종에서 토탈시스템이 정착 되었다는 낭보를 아직은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호스트랜용의 프로그램이 자체개발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정용 또는 전용의 목적으로 소스트를 구입코저 함께도 그에 앞서, 현재의 호스트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숀을 선행한 후에기종을 선택해도늦지 않다.

이 반·에 CLEIENT/SERVER에 의해 다운싸이징한 외무부나 광주은행의 전산사례는 경영적 전산혁명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전산에 신규투자가 필요한 기관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꼭 재평검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OS의 통합운동으로 아프리케이션문제 감소, PC에 브랜치에큐기능, 멀티프로세싱기능등의 추가로 워크스테이션 시장 가열, 외부데이타베스의 대용량화 현상은 대형범용시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서관 전산을 전산측면 보다는 경영적 측면을 중시하여서 이용하기 쉽고 부담없는 시스템으로 발전 시켰으면 한다. 즉 이런의 온라인 검색시스템도 비록 PC LAN이지만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곧 이어서 대출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전산시작 이전의 데이타 소급인력은 94년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래 외주 또는 재택근무제 도입을 연구중에 있다.

이용쉽게 부담없는 시스템 필요
학위논문, 종합도서관 활용계획

Ⅲ.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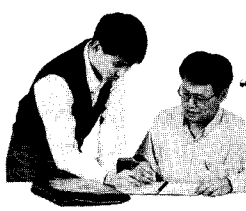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석박사 학위취득자는 1965~1991년 사이에 22만3천8백4명에 이르는데, 그중 우리대학은 12만1백42명이다. 학위 논문이 적게 발행 될 때는 잠교환되던 것이 그분량으로 말미아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지자, 전국사립대학 도서관 협의회는 실불보다는 목록이나 초록으로 교환을 대신토록 합의하여 자기대학 논문만 보관하게 되었다.

이 호 련

〈중앙도서관 사무국장〉

당신의 비전을 실현해드리는
럭키금성의 新制度

CULTURE UNIT



"개열사마다 업무스타일이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데에 정말 놀랐습니다"

인텍사원 조성호, 이창환

한달동안의 인턴사원 교육과정을 통해, 저는 럭키금성에 관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이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 어느 기업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되는 연구개발 등—
럭키금성의 실체는 제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너무도 판이했기에 저는 저의 좁은 소견을 거듭 질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각 계열사마다 업무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너무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자회사는 전자회사대로,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대로, 종합상사는 종합상사대로, 독창적인 경영스타일과 문화가 뚜렷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보니 그룹내 사업들을 동일한 사업문화를 가진 사업체별로 구분해서, 그 사업을 가장 잘 아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른바 C.U(Culture Unit) 즉 사업문화단위에 의한 자율경영이죠.
하긴, 형제간에도 성적이나 능력이 전혀 다른게 다반사인데, 같은 그룹이라고 어떻게 똑같은 원칙과 규율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C.U를 이해하고 난 후, 럭키금성의 자율경영이 확신한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럭키금성은 독자적인 사업문화단위 (C.U)를 통해 자율경영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